

IV. IMF 시대를 넘는 지혜

1. 외국인 전문가가 본 한국 경제의 심각성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외국 자본의 유치이다”라는 명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외자 유치를 통해 외환보유고를 확충함은 물론, 금융기관과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스스로 실행하기 어려운 구조조정 과정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입장을 바꾸어서 외국인 투자자, 또는 그들에게 조언하는 외국인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IMF 시대가 시작된 이후 지난 몇 개월간 필자가 접해 본 외국인 전문가들은 대체로 증권업 관계자, 펀드 매니저, 언론인, 외교관들이다. 비록 직업과 경륜 면에서 제한되기는 했으나, 이들의 우려와 지적을 종합하면 한국 경제가 아직은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들의 생각은 다음의 몇 가지로 압축된다.

□ 실제로 제도와 관행이 바뀌고 있는가

외국인 기업가와 금융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 설명회에서 가장 자주 직면하게 되는 불만이자 지적 사항이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금융 및 실물)를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발표하고 있으나 아직 실감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복잡다기한 규제, 제도에도 없는 불필요한 관행, 한국인의 배타적인 감성, 이런 것들이 단숨에 없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부동산 취득까지 자유화하는 등 제도는 많이 바뀌고 있지만 일선 창구에서는 어쩔 줄 몰라하거나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 경우가 아직도 없지 않다. 공무원들이나 금융기관에서 외국인에 대해 적용하는 불필요한 차별 대우도 근절되기가 쉽지 않다. 좋은 사례 10개보다 나쁜 사례 1개가 훨씬 영향력을 지닌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구조조정의 각오는 있는가

구체적인 투자 상담에서 한 단계 올라오면 한국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 노력에 대한 의구심이 문제이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필자에게 “작년에는 대기업이 많이 도

산했는데 오히려 IMF시대가 시작되고는 대기업 도산이 없다"라든가 "무슨 무슨 은행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작년에 도산한 것으로 알려진 무슨 기업은 지금도 영업 중인데 어찌된 영문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외국 전문가들이 많았다. 물론 정부와 각 당사자들이 제시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자세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하여간 이런 질문에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하는 한 이들은 한국 경제가 구조조정의 각오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오해할 것이다.

□ 실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한국 경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급격한 실업 증가와 이에 대처하는 정책을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다. 선진국들은 평균 7~8% 이상의 실업을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완전 고용 상태에서 살다가 갑자기 증가하는 실업을 경험하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감당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특히 실물 부문에 직접 투자할 것을 검토 중인 외국인들은 당연히 한국 정부와 사회가 급증하는 실업과 이로 인한 사회 불안을 어떻게 다스려 나갈 것인가를 궁금해하고 있다. 고용 불안이 대대적인 파업으로 연결되고, 실업 문제가 사회 불안으로 연결된다면 한국 전체의 투자 매력도는 그만큼 하락할 것이다. 그렇다고 실업 발생을 억지로 막는다든지 또는 실업자에게 덮어놓고 정부 재원으로 지원한다면 구조조정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재정 부실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실업 문제는 우리에게 다분히 딜레마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정책 당국으로서 구조조정의 큰 줄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이다.

이제는 외국인들에게 덮어놓고 "한국 경제의 기본 여건(fundamentals)은 좋다"라고 해도 소용없다. 경제 개혁의 원칙과 부문별 구조조정, 그리고 실업 문제와 같은 현안에 대해 분명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 자본은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고 등돌릴 것이다.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일단 분명한 제도적 개혁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Action Plan)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의 실천이 뒤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조 흥 래 hrjo@hri.co.kr 2724-4056)